

# “기움 으뜸 행복도시 조성”

### 강임준 군산시장, 민선8기 1년 맞아 시정운영 방향 발표... 아이키움 등 핵심 과제로

강임준 군산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움 으뜸 가족행복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강 시장은 3일 오전 군산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1주년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강임준 시장은 지난 1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서부터 첨단소재와 이차전지 산업의 집적화에 이르기까지 역대급 성과를 이뤄냈다.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개개인과 가족이 모두 행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군산을 만들어 간다는 복안이다.

군산시는 청년의 수도권 유출, 비혼과 저출산 문제를 핵심현안으로 분석하고 3대 핵심과제(아이키움, 청년키움, 행복키움)에 17개 사업을 발굴했다.

양육에 있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군산형 키움정책수단', 즐길거리·채팅거리 부족에 따른 학부모 숙원사업인 '꿈키움 플레이홀', 지역에서 공부하고 취직하고 가정을 꾸리는 교육·산업·주거 연계 청년 토론탈 정착 솔루션 미래인재 육성 프로젝트 등이 기획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날 무엇보다 뜨거운 화두는 인구감소로, 교육·의료·주택 등 삶의 전 분야에서 위기를 촉발하고 있고 특히 '인구감소' 발(發) 경제 위기가 본격화된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으로 인구감소에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고 했다.

국가적 문제를 지방 차원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실로 계란으로 바위 치기지만 도전을 아끼 할 수 없는 지역 존립



강임준 군산시장이 3일 군산시청에서 민선 8기 취임 1주년 브리핑을 열고 지난 1년의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실함을 갖고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시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출력동시의 자세로 교육 및 관광 기반 강화, 키움 으뜸 가족행복도시 추진 등에 집중하며 제도외에 행정 역량을 모아 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 교도소세트장이 K-콘텐츠를 이끄는 드라마 영화 촬영지에 이어 첨단기술을 접목한 체험형관광을 선보이며 K-컬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 ‘교도소 씬(scene)의 새 장 열다’

### 익산교도소세트장, K-컬처 중심지로 급부상

익산 교도소세트장이 K-콘텐츠를 이끄는 드라마, 영화 촬영지에 이어 첨단기술을 접목한 체험형관광을 선보이며 K-컬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익산교도소세트장은 최근 '이로운 사기', '신성한 이혼', '뽀 대이커' 등 국내 인기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2005년 영화 '올리비아'를 위해 익산의 폐교가 국내 최초 초대형 '교도소 세트장'으로 변신하며 "교도소 씬(scene)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지 1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6월 기준 드라마 영화, 유튜브 등이 14편 촬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한해 제작된 19편의 73%에 달하는 편수가 상반기에 제작된 것으로 올해 촬영 증가 추이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현재 인기리에 방영 중인 tvN의 '이로운 사기'를 비롯해 올 7월에 상영 예정인 하반기 기대작들이 이곳에서 촬영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K-드라마 촬영지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다. 익산교도소세트장 방문객 수 또한 드라마영화 콘텐츠 위력에 힘입어 하루 평균 300여명, 연간 10만명이 넘어 서며 익산 대표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는 단순 촬영지 형식의 관광자에서 벗어나 MZ K-컬처 시대에 맞춘 문화공간으로 변신을 시도 중이다.

기존의 죄수복 체험, 호송 택시와 감옥 속에서 인생사인 찍기 등 이색 체험을 포함해 K-컬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최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노리 홀로그램 페스티벌'은 지역 선도사업인 홀로그램과 공포 콘텐츠를 활용해 실감나는 체험을 선사하며 1만3천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방탈출 앱을 활용한 교도소 게임 프로그램인 '교도소가 살아있다' 축제 또한 관람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시는 올 하반기에도 인기 드라마, 영화 촬영 유치를 위한 노력과 함께 첨단 기술을 접목한 체험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한류와 연관 산업의 시너지를 가져올 K-컬처' 관광지로 도약할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K-콘텐츠를 넘어 K-컬처를 주도하기 위해 익산교도소세트장에 지속적으로 관광콘텐츠를 확충해 2023 익산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500만 관광도시 기틀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기자

## 미국 식품시장 수출 '물꼬'

### 익산 국식품 방문단, 뉴프론티어푸드 방문 수출 활성화 도모

정현을 시장이 이끄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방문단이 미국 식품기업 방문하며 식품 수출 세일즈와 투자유치에 나섰다.

이번 방문으로 미국 시장 진출에 물꼬가 될 수 있다는 식품업체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일(미국 현지시간 6월29일) 익산시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공동 방문단은 미국 건강식품기업 뉴프론티어푸드(New Frontier Food, Inc)를 방문했다.

뉴프론티어푸드는 2011년 샌프란시스코를 거점으로 설립된 기업으로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원료(김, 쌀면) 등을 활용해 미국인의 기호에 맞는 유기

농 식품브랜드인 Ocean's Halo를 출시했다. 2013년 미국 동부 최대 건강식품박람회(Natural Products Expo East)에서 Press Award 1위를 수상한 바가 있는 스타트업기업이다. 주요 생식품은 김스낵, 누들, 소스 등이며, 아미온·윌마트·크로거 등 미국 온라인과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며 지난해 매출 약 700여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현지인 입맛에 맞게 개발한 김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미국 내 김 최초 시장 판매량 1위(21년 기준)를 달성하였고 유럽 내 홀푸드마켓과 테스코에도 확장 진출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방문단은 뉴프론



티어푸드를 방문해 이선형·Rober Mock 공동 대표 등 관계자를 만나 미국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제품 현지화 노하우와 USDA 유기농 인증, 비건 인증 제품OEM 생산·판매 가능 한 기업 발굴 등 수출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세계 최대 식품시장인 미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이 미국시장 진출에 더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전북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최우수상' 수상

### 군산시 원나포마을, 마을길 담장정비·벽화그리기 주민 참여 꽃길 조성 등 아름다운 마을 조성

군산시는 전라북도에서 주최한 제10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군산 원나포마을이 마을만들기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에서 주관한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는 생생마을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10회째를 맞고 있다.

콘테스트는 소득·체력, 문화·복지, 경관·환경 통합 우수사례의 마을만들기와 복합서비스 거점 조성 및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유류시설 활용 우

수사례의 농촌만들기로 평가가 이뤄지며 최우수 수상 4개팀은 농식품부 주관 콘테스트에 전북도 대표 참가자 격이 부여된다.

이번 최우수상 수상으로 원나포마을은 오는 9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가해 전라북도 생생마을의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기회를 얻게 됐다.

마을만들기 최우수상을 수상한 원나포 마을은 지난 2021년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사업을 통해 마을길 담장정비,

벽화그리기로 마을 경관을 조성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꽃길을 조성해 경관이 아름다운 마을이 됐다.

또한 2022년에는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창업을 위한 상품개발과 우수 창업 아이템을 공유하는 농촌마을 창업 콘테스트 사업을 4개월간 진행했다.

마을러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헌신으로 마을주민들과 지속적인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고 이로 인해 마을만들기 우수 선진 사례가 되어 타시군에서도 원나포마을을 방문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정현을 익산시장, 정부 예산 조정 대비 나서

정현을 익산시장이 정부의 예산 조정에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 시장은 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내린 사업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며 재정 다이어트에 나섰다"며 "익산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반영을 위해 각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본래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예산 요구안을 받아 8월 말이나 9월 초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로 보내왔으나 건전재정을 위해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안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익산시는 사업별 효과성과 타당성을 입증하고 필요성을 적극 어필해 내년도 예산안에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 시장은 이날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시의회 임시회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는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조례안 등의

안 등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주요 안건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준비와 소신 있는 답변으로 대응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더불어 풍수해 및 폭염대비 안전대책 강화에도 힘을 쓸 것을 지시했다.

정 시장은 "올여름 장마와 폭염이 지속됨으로 인해 각종 피해가 우려되는 바,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및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며"폭염취약 계층과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무더위 쉼터 운영, 폭염 대응요령 홍보 등에 힘써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전북조선업도약센터 '인식개선'의 날' 운영

전북조선업도약센터가 조선업 인식개선을 위한 '조선업 인식개선의 날'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

'조선업 인식개선의 날'은 조선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조선업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선박제조과정 및 조선업종 기업인사담당자의 조선업 직무설명, 채용정보안내 시간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면접특강 등으로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7월과 21일 각각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조선업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대강당에서 2회 운영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일상 속 청렴문화 확산 시민감사관 간담회

군산시는 청렴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지난날 27일부터 29일까지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시민감사관 분과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시민감사관 2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과 반부패, 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 및 오는 9월 시민감사관 신규 유추에 따른 공지 사항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반부패,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에 따른 활동 방향과 역할에 관해 토론하고 청렴 의식을 전파하는 순도자로서의 결의를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드림스타트 어린이 직업체험 진행

익산시드림스타트는 특수분장사 직업에 대한 탐색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을 지난 1일 진행했다.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직업과 진로를 생각해보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익산 아뜰리에 미술학원과 연계해 특수분장사 직업 교육으로 아이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

아동들은 직접 재료를 사용해 상처 분장을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여과지 드라마에 많이 나왔던 영화까지 모양의 상처를 분석하고 왁스와 라텍스 용액을 이용해 자신의 팔 등에 상처를 만들어 보는 등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아동들은 "텔레비전에서 보던 상처를 실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배워 신기했고, 특수분장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되어 유익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해 내 몸에 상처를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즐거웠다"며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새로운 분야의 진로를 알게되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는 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아이들이 직업에 대해 더 넓고 다양한게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체험 교육은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성산 대평세라믹스 부지활용 대책 마련

### 군산시의회, 공개토론회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 3일 김영일 의장 이한세의 의원을 비롯하여 시 관련부서 및 성산면 주민과 함께 성산면 대평세라믹스 부지활용 대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성산면 산곡리 환경대책위원회의 경과보고 및 주민과 집행부 간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일 의장은 "우선 임시위원 성산면 산곡리 환경대책위원회 대표를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성산면 대평세라믹스 공장 주변 불과 50m 거리에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위치해 있어 이곳에서 생산하는 먹거리는 군산뿐만 아니라 서울·경기도에도 급식 재료로 쓰이고 있으며, 50m~70m 거리에 전원주택이 조성되어 있는데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 군산시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한 먹거리,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한세 의원도 "주민이 고통스럽게 나서서 투쟁해야 대책이 마련되고 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른 시 재개발 관련 요지를 참조할 때 바람의 방향, 지형 상태 등 정량적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공장 설립 후 문제를 막는 것보다 사전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임직원 지역주민대표는 경과보고를 하면서 "성산면 산곡리 환경대책위원회는 131일 제 군산시청 앞에서 주민들이 농사철임에도 집회 중이며 군산시와 전라북도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면서 "비선민지 발생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에 악영향을 주고 아이들의 건강



한 학교 급식마저 위협받지 않도록 시에서는 계속 불허 처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회에서 지역주민들은 군산시 대기환경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데 공공에서 관심을 가져 이러한 공장이 마을 한복판보다는 산단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익사업을 위해 부지를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부지활용 방안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공익적 사업으로 활용하길 바라며 공장부지를 군산시 사업부지로 활용하여 성산이 친환경 재배지인 만큼 군산 먹거리 생산의 미래를 위한 공간·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농촌 유학센터, 게스트하우스 같은 체류형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환경영향평가 시에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 반영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제정 하, 군산시의 친환경 급식 확대·유지를 위해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노력을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영일 의장은 "이번 이 자리가 뜻 깊고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성산면 대평세라믹스 부지는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와 주민들의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서라도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게 최선이다"라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군산=김판곤 기자